

지금은 히메지항의 일부인 이 지역은 예전에는 ‘시카마쓰 물양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의 종착점으로 이곳에서 효고현 북부의 광산에서 나온 은과 다른 금속이 세토 내해 연안의 공장으로 수송되었습니다. 수송 속도와 안전성을 향상시킨 은의 마차길과 시카마쓰 물양장의 건설은 메이지 시대(1868-1912 년)의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메이지 정부가 가장 빠르게 착수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인 기사 레옹 시슬레(1847-1878 년)가 설계한 전체 길이 49km 의 도로와 ‘시카마쓰 물양장’의 건설은 1873 년에 착공해 1876 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894 년까지 일본의 인프라는 북부의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철도로 수송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시카마쓰 물양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사다 화학공업은 이곳을 정부로부터 매입해 현재는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두에 남아있는 것은 벽돌 건물을 구성하는 벽의 일부뿐입니다.